

오래도록 향내 나는 책

권택영

경희대 교수·영문학

예술의 매혹은 어디에서 오는가. 허얇게 쌓인 눈이 힐끗 넘겨다 보이는 방안에 바이올린의 고운 선율이 가득 넘칠 때, 생나무 무늬결이 채 가지지도 않은 마루바닥, 침대 위엔 빨간 이불 끝이 내 다보이고 걸상 두 개, 책상 하나, 벽에 걸린 옷가지와 그림들, 어느 골목으로 났음직한 창문 하나가 삐끗 열려 있다. 살아서 꿈틀거릴 듯한 고희의 '노란 집의 침실'. 왜 좋은 음악을 들을 때면 눈을 감게 되고, 좋은 그림을 볼 때면 웅얼리진 마음의 빗장이 스스로 열리면서 달콤한 일들만 떠오르는가. 우리를 놓아주는 힘 때문인가? 아니 우리를 사로잡으면서도 놓아주는 힘 때문인가.

예술의 매혹이 우리를 놓아주는 데 있다면 언어만큼 우리 마음을 구속하는 족쇄도 없는데 문학은 어떻게 우리를 놓아주나! 언어가 품고 있는 비유적 속성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문학은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일상언어와 달리 은유의 힘을 마음껏 축복하는 에둘러가기인지도 모른다. 읽는 과정에서는 독자를 사로잡으면서도 읽고 나서는 풀어주어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문학이 지닌 매혹이 아닐까.

내 소박한 책장 맨 윗칸에는 이십년간 이사도 많이 다녔건만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책 세권이 꽂혀 있다. 열화당문고로 자그마한 반 고희의 그림책, 문예문고로 로맹 롤랑이 지은 '베에토벤의 생애', 그리고 황순원의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소설집이다. 예술 속에 자신을 불살라 넣은 고희나 베에토벤의 열정적인 생애는 내 삶이 목적없이 표류하던 날 우연히 손에 닿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간직하고 가끔씩 들여다 본다. 얇고 작은 책에서 어떤 영기가 솟는 것 같아 어린시절 주위모은 조개껍질마냥 삶에 빈혈증을 느낄 때면 들추곤 한다. 이제는 시간의 두께를 지녀 내용보다 책 그 자체가 의미를 얻고 소중해졌다.

황순원의 소설집은 바스리질 것같이 누렇게 퇴색되었다. 뒷장을 펴면 단지 4291년 중앙문화사라 적혀 있고 값은 800원이니 참으로 옛애기다. 「불가살이」 「산」 「비바리」 「내일」 「잃어버린 사람들」……. 주로 50년대에 쓰인 중·단편들이다. 대학시절 친구로부터 선물받았을 때는 「내일」이란 중편이 가장 인상이 남았는데 그 이후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뇌리에 새겨졌다. 내 삶이 어느덧 내일내일로부터 잃어버리면서 주위가는 쪽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소금장수 복코, 순이와 석이, 비바리의 이야기가 음화처럼 어렴풋하고 그 동화가 좋아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공언히 좋은 것, 변함없이 좋은 것, 이유가 없는 것, 그래서 내 보이고 밝히고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밤늦게 책을 들여다보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일년 동안은 책을 한 권도 안 볼꺼야' 라고 뇌이던 시절, 문득 고개를 들어 벽을 보면 세월과 관계없는 달력이 걸려 있었다. 그 달력 맨 뒷장에는 어느 초가집 헛간에서 디딜방아를 찧는 두 아낙네의 필력이는 치마가 그려져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하곤 했다. 저 여인네는 지금 얼마나 추울까, 저렇게 허얇게 눈이 왔는데……. 그 그림은 고향을 향한 그림움과 팍팍한 현실을 견디어 내는데 힘을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소파에 반쯤 누워 눈을 감고 옛날에 읽은 소설을 떠올린다. 석이와 도망가서 산 속에 살던 순이, 머루 같던 그애의 눈, 사랑, 내일 그리고 또 내일.

한국에 돌아와서 K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어느날 국문과에 강의를 나오시는 황교수님을 가끔씩 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드리지 못했다. 아니 시치미 뚝 떼고 커피 한잔 사달라고 조르지도 못했다. 마음을 내보이면 책이 닳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글을 쓴 분에게 조차도.

좋은 영화를 보면 감동받지만 좋은 책만큼 간직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책은 오래되면 누렇게 변해가는 게 좋고 늘 곁에 있어주니 좋다. 그래서 영상매체의 위력 앞에서 사랑받는 친구에게는 책을 골라주고 싶다. 세상살이의 족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오래 향내가 나는 그런 책을.

알림

「출판저널」 이번호는 설날 연휴 관계로 2월 20일자로 발간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지를 바랍니다.

표지인물	2	전통문화 현장기행으로서의 절집 편력 「명찰순례」 퍼낸 최완수씨
연재기획	4	일상적 삶을 통해 읽는 거장들의 창조성 — 이중한 오늘의 삶을 돕는 지금 이곳의 책읽기 ②
현장취재	6	책읽기의 새로운 풍속도 '도서대여업' — 최태원 일산 등 신도시지역서 성행...빌딩가엔 보따리 장수도
서평	8	이상희 「조선조사회의 커뮤니케이션현상연구」 — 정대철 학술단체협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 신광영
	9	브레진스키 「통제불능의 세계」 — 공성진 김인환 「상상력과 원근법」 — 김태현
	10	김채원 「형자와 그 옆사람」 — 김종희 임철우 「등대 아래서 휘파람」 — 김만수
	11	김형경 「새들은 제이름을 부르며 운다」 — 문홍술
	12	포스터 편 「반미학」 — 정정호 이종은 외 「이능화연구」 — 금장태
쟁점서평	13	과감했지만 미흡한 새 문학사예의 도전 — 류보선 김재용 외 지음 「한국근대민족문학사」
이색출판	14	역사를 훼손하는 사진조작의 실상 알랭 주베르 지음 「20세기 그 인물사」
	15	공산권 연구 위한 기업과 출판사의 합작 집문당 펴냄 '아산재단연구총서' 시리즈
초점	16	진보운동 새 활로 어떻게 모색되나 문민시대 운동의 지향 찾는 논의들 다양하게 제기돼
출판화제	17	'벤치마킹' 관련해 쏟아진다
화제의 책	18	통일민족사학 표방한 '민찬' 한국사 한길사 펴냄 「한국사」 전 27권
리뷰	19	현대의 명저 번역 더디고 부족하다 「교수신문」 선정 '살아있는 세계의 석학' 국내소개현황
이 책 그 사람	20	「밤하늘 관측」 퍼낸 심재철씨 「글로벌 코리아」 퍼낸 이광출씨
	21	「한국문학비」 퍼낸 함동선교수 「머느리에게 주는 요리책」 낸 장선용씨
세계의 책	22	성인으로 추앙받은 프랑스의 도둑 작가 — 배병삼
해외취재	24	배우러 가 구경만 한 명색뿐인 국제전 '94 동경 북페어에 다녀와서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7	출판계 뉴스
	48	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